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의회와 시민을 더하면
희망이 됩니다

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SAMSUNG

초대형 Neo QLED 8K 로 선수교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Neo QLED 8K 보상판매

2022 삼성 TV가 준비한 스포츠 기획전을 만나보세요 [2022.10.1~11.30]

2022년 최고의 경기를 보는 **Big Picture**

2022 Neo QLED 8K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16년 연속 세계판매 1위

*2006~2021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서울코리아

CONTENTS

2022. 11 | 통권 436호 |

커버스토리

송유영 메디슨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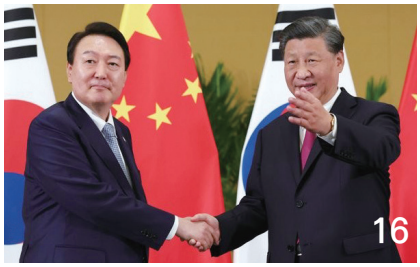
송 회장은 건설업부터 절수기사업, 신소재 개발, 다양한 투자 진행, 현장 경험 및 풍부한 사례 통해 안정적인 기업 경영 지양한다.

모바일 서울코리아 보기

POLITICS 정치

한 · 미 · 일, 프놈펜 정상회담

尹-시진핑 첫 대면…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與 '친윤-비윤' 또 갈등?

ECONOMY 경제

재계 인사 시즌 임박

INTERNATIONAL 국제

바이든 고무에 민주당 우려

창간인 · 발행인 · 회장	송원기
편집인	박성수
인쇄인	㈜아이피디
논설위원	송진영
정치부 국장	박성수
경제부 국장	강희원
사회부 국장	이주용
국제부 국장	문용진
지방 취재본부 국장	최병문
등록번호	서울,아52852 / 서울,가50137
등록일자	2017년 4월 5일
발행처	서울코리아컴퍼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대표번호	1533-1545
팩스	02-558-2289
이메일	mbc0300@gmail.com

송유영 / 메디슨그룹 회장

“경제 위기는 소통 경영으로”

소통은 ‘유능한 인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송유영 메디슨그룹 회장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송 회장은 건설업부터 절수기사업, 신소재 개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뿐 아니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양한다고도 한다.
특히 환경과 소통 경영을 이루어 오늘날 위기를 타개할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송유영 회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Q. 현재 메디슨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는 어떤 곳인가.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는 한마디로 초대형 메디컬 전문 근린 상가다. 용인특례시의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입점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당초 기획된 곳이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까지 확장해 의료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허브병원이 되고자 했다. 특히 용인 세브란스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곳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춰 주변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맛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다.

대표 점포시설로는 약국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모든 병원 개원을 통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또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각종 음식점, 휴게시설 등 전문 편의시설이 두루 입점해, 주말과 휴일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서울 근교에서 온 가족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중요한데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는 용인 경전철 동백역, 어정역 도보 3분 거리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으면서 6차로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 잘 드러맞았던 것 같다.

Q. 그렇다면 메디슨그룹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뭐였나.

젊었을 때 오랫동안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설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막연히 했던 것 같다.

당시 건설업은 오래전 경제적 기반이 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면, 현재는 인간의 일상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테마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현대건설을 그만두고도 이러한 생각들이 뿌리깊게 잔재해 투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시도했으며, 실패도 봤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다.

생각은 곧 길을 만들어 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약 15년 전 현재 메디슨타워 부지의 땅을 78억 주고 사게 되었다. 또 땅을 샀으니 뭔가를 지어 올려야 하는데 '테마가 있는 건물'을 올려야지 했던 그때의 생각을 타고 오르다 보니 메디컬 복합 센터를 구상하게 되었다.

Q. 평소에 의료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좀 더 설명해 달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 분명 누구나 아프고 나이들면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좀 더 고도화하고 차별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동네 병원은 많아도 의료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군데가 아파서 흩어져 있는 병원을 여기저기 이동해야 한다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점점 대형화 돼 가는 현실이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병원에 들렀다가 이왕이면 가족 또는 지인들과 약속을 할 수 있고 의료에 관한 일체 해결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건물을 올리기 전 이러한 의료산업 흐름을 조사하면서 '의세권상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용인 동백지구는 2020년 3월, 동백 연세세브란스병원 개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용인 동백 의료복합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에 따라 용인 동백 지구는

용인 메디슨타원 전경

대우 한강 베네시티 투시도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 장점

① 경전철 동백역, 어정역 도보 3분 거리!
② 더블 역세권·6차로 대로변 위치
③ 유동 인구 유입 우세

제약·의료기기·바이오 등 연관 산업군이 한데 모인 최첨단 의료 클로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때 잘 맞아떨어졌다.

동백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총 755병상 규모를 갖추고 예상 직원 수 8,000여 명으로 의료진 포함 보호자, 내방객 등 유동인구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초대형 상권을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중심에 위치한 용인 동백 메디슨타워가 있다.

Q. '그래핀(graphene)'이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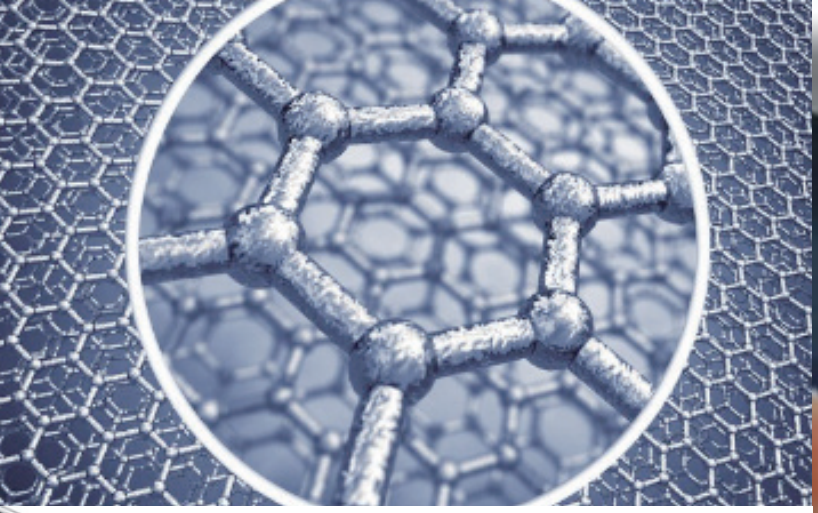
평소 소재개발에 관심이 많아 투자를 여러 곳에 해놓은 상태다. 그중에서 '그래핀'을 개발했다. 그래핀은 '꿈의 물질'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다. 흑연을 원료로 했고 이 흑연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평면들이 얇게 층으로 쌓여있는 구조로 보면 된다. 인용을 하자면 2004년 영국의 가임과 노보셀로프 연구팀이 상온에서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는 데 성공해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래핀은 좋은 특성은 모두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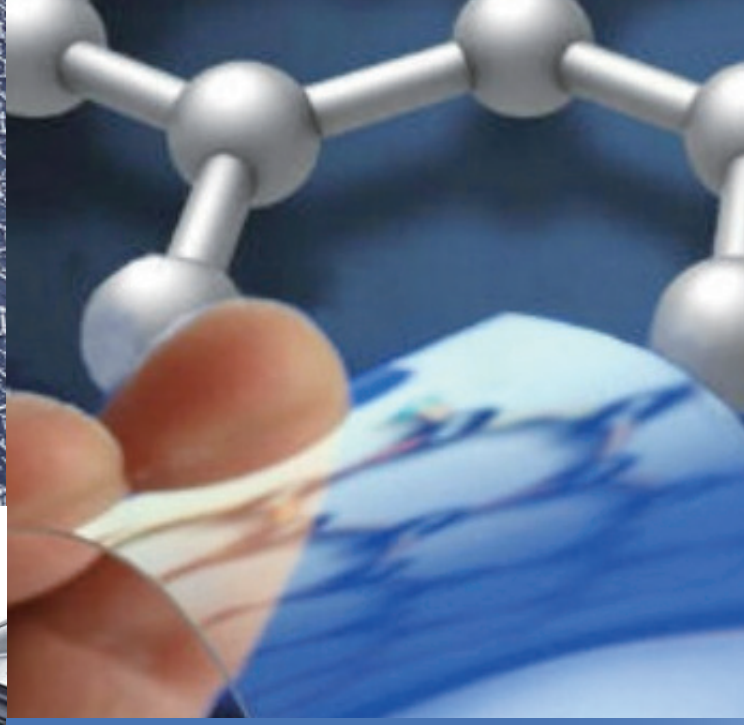
구리보다 100배이상 뛰어난 전기구도와 강철보다 200배이상 강한 강도, 매우 가볍고 97.7%의 엄청난 빛을 투과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차세대 신소재여서 꿈의 물질로 부르고 있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 시트 시장은 2021년부터 시장이 형성돼 2030년에는 약 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시장 형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그래핀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

탄성이 뛰어나 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 그래핀은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한 소재다.

대개 높은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초고속 반도체에서부터 투명 전극을 활용한 휘는 디스플레이, 높은 전도도를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웨어러블 컴퓨터, 전자종이 등을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I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 동소체 중 하나로서
2010년부터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중 하나!
그래핀의 그물 구조 때문에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면적의 20%를 늘려도 끄덕없다!

그래핀은 가볍기도 하고 내구성이 강한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비행기나 자동차, 건축자재에 사용된다. 가볍고 안전한 전투복과 방탄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탄소 섬유도 관심이 커졌다.

그래핀은 우리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발견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ICT 기업에서는 그래핀을 결합한 전자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LG디스플레이가 그랬다. 예를 들어 창가에 커튼 형식으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싶으면 구부러진 디스플레이를 펴서 시청할 수가 있게 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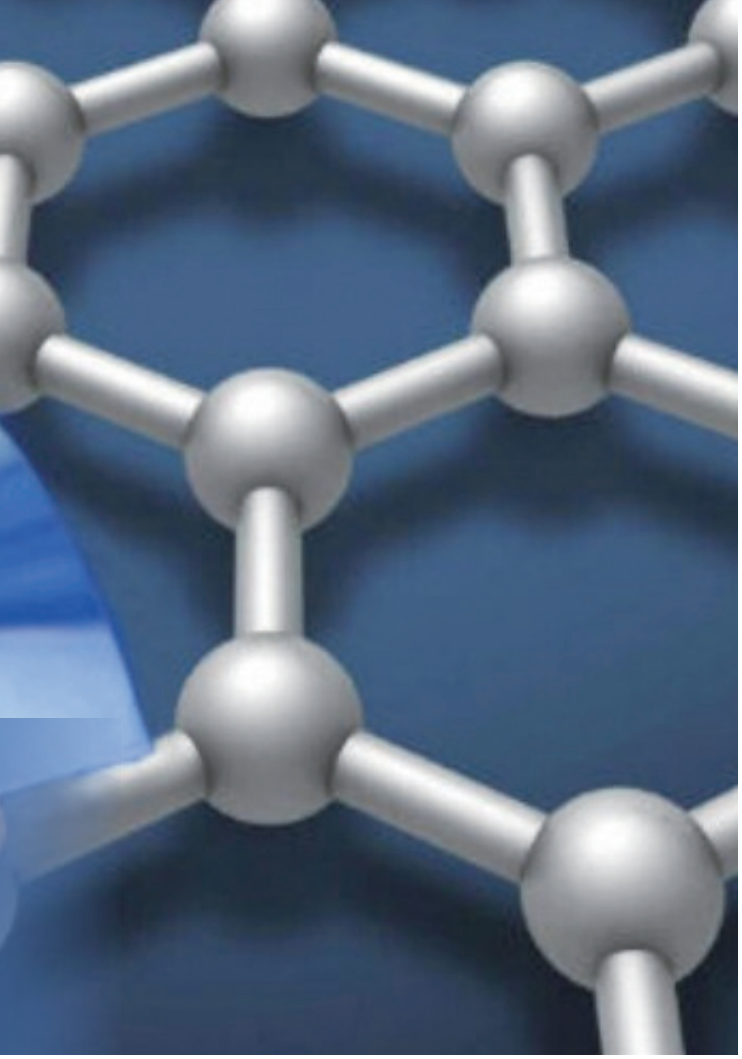
다른 분야로는 배터리가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할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에서는 배터리가 핵심 관건으로, 그래핀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다.

Q. 그래핀은 왜 상용화가 안 되나.

그래핀은 이렇게 많은 특장점을 지녔지만 분명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래핀의 기초 과학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다. 그건 바로 밴드갭(BandGap)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밴드갭은 일반 도체에서 에너지 준위차를 만들어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력을 흐르게 하는 원리다.

그런데 그래핀에서는 밴드갭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밴드갭과 관련한 그래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래핀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하지만, 막상 그러한 일은 그 기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이지 당장 실용화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그래핀의 탁월한 특성과 소재 활용 가능성에 관련된 엄청난 양의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래핀의 실용화를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래핀 소재의 생산과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 경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 그래핀의 대량 합성 기술, 산업적 기술 적용이 가능한 그래핀의 가공 및 기능화, 그래핀 소재 및 응용·가공 소재 품질과 특성을 구현하고 적용하는 방법 개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봤다.

Q. 주식회사 코리아엠에프씨(KMFC)는 어떤 회사인가.

그래핀 소재의 시장 선점과 새로운 응용소재시장 개척을 위한 회사를 전북에 본사를 두고 2020년 3월 30일에 설립했으며, 3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주로 ▲저가·고품질 그래핀 원소재 제조를 통한 시장 선점 ▲차량용 열관리 등에 적용 가능한 그래핀 냉각수 제품 개발 판매 ▲그래핀 기반 방열·방청·음극재 재료 생산 및 판매 동아시아 그래핀 원소재 기반 시장 선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다. 현재 회사는 그래핀 적층 구조체 제조 기술 특허와 산화 그래핀 제조 기술 특허, 흑연 전처리 기술 특허를 낸 상태다. 향후 화학팽창제를 층간 삽입물로 함유하는 흑연의 광열-유도 박리(그래핀 원소재)와 그래핀 방열 패치의 제조 방법(그래핀 방열소재), 내연기관용 기능성 냉각수 첨가제 제조방법(그래핀 냉각수 첨가제) '노벨 특허'를 준비 중에 있다.

Q. KMFC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

현재 그래핀 소재 개발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다. KMFC에서는 그래핀 방열 소재에 대해 방열에 최적화한 그래핀 소재의 특성 제어 기술을 확보와 그래핀 소재와 합성해 방열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노 세라믹 제어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2021년 부산대학교 재료연구소와 그래핀 방열소재 공동개발 및 평가과제(기업수탁) 수행계약 및 공인 성능 인증 예정이다. 그래핀 방열 소재의 최대 수요처인 태양광 패널 후면 방열, LED 후면 방열, 기타 산업용 방열 관련 업체에 시제품 공급 및 공동 개발 추진 예정이다. 향후 LED 협회와 LED 방열 코팅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고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와 후면 방열 코팅 마케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 공조 냉각 관련 업체와 테스트 및 공동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그래핀 소재를 이용하여 냉각시킬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열에 적용될 그래

"소통을 통해 많이 베풀고 싶다.
이것이 경영 철학이면서 소통 경영을
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핀 소재의 최적화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핀 방열 소재의 개발 완료, 양산화 사례까지는 아직은 없다.

Q. 코인 상장 계획은 무엇인가.

회사 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마디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절차지만 회사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딸리는 경우 당연히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향후 수익을 내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성 요건 충족을 못 해도 정해진 기관의 심사 후 상장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역시 상장 이후 많은 조건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외에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상장한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 불특정다수한테 코인을 팔 수 없으니 우선 소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투자한 대가만큼 코인을 갖고 있으면, 상장이 돼 있으니 또 실제로 수익이 일어나면 코인을 살 사람이 많이 생긴다.

원래는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줘야 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투자해놓은 것이 수익이 나면 팔 수 있도록 상장시켜 놓는 거다. 상장은 일정상 3개월 정도 후에 상장될 시켜놓을 수 있다. 또, 상장사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투자하면 전환사채가 상장이 안 되면 원금 회수를 할 때 이자를 현금상환해야 하는데 상장이 된 것은 주식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현금으로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옵션이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상장이 돼 있으면 투자자가 필요하면 현금으로 구매해 줘도 되고,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시장에서 거래해서 수익을 취해도 되고 점이 있어서 상장을 하는거다. 다만, 코인시장이 주식시장과 다른 것은 주식상장은 KRX에서 진짜 기술이 탁월하다거나, 탁월하더라도 들어가면 스펙상장을 시키거나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Q. 상장 후 자금 운용은 어떻게 쓰이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재 산업의 경우, 시설 투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1차 산업이라는 게 기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미국 긴축을 비롯해 세계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자 부담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 .이자가 저렴할 때 생산 원가를 잡아놨던 것이 이자가 올라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가 너무 취약하게 돼

있다.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신소재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산을 해서 수익을 내기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사도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신소재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생각이다.

Q.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는 늘 안 좋다고 하지만 올해 특히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물가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그 물가를 잡겠다고 전 세계가 난리지 않나.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불을 지폈고, 코로나19 장기화도 한 몫 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경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같은 사업자들은 원자재들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니 또 힘들게 된다.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떠들썩한 데 건설 쪽에 있다 보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채권 시장도 잔뜩 움츠리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이 경색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았지만,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경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건 더 있다. 환율은 오르고 국내 주식시장도 올해는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지인들을 만나면 외환위기 온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대부분 저성장 국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잘 이겨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

Q. ESG 경영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인 것 같다. 아직은 ESG 경영 일환으로 무언가를 거침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장하고 회사 몸집이 더 커지고 나면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투명한 경영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지금 그래핀 소재 개발 등은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친환경 생산기술로 그래핀의 혁신적인 가격과 성능을 증명할 뿐 아니라, 투자유치와 양산화를 이뤄 그래핀 산업의 신산업생태계를 창출하려고 한다. 말만 거창하고 행동이 없는 경영은 하지 않을 생각이며, 친환경 공정으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은 'E'에 해당하는 환경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한다.

Q.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경영 철학은 뭐 별거 없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소통경영은 더 중요해졌다. 회사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소통경영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완성하는 첫 단계이면서 마지막 단계로 봐야 한다. 요즘 말로 소통에 진심이고 싶다. 소통은 유능한 인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에게 베풀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자는건데, 사실 요즘은 변화도 빠르고 생각도 빨리 빨라 평소 소통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으면 올바른 문화라는 것을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소통'을 통해 많이 베풀고 싶다. 이것이 '경영 철학'이면서 '소통 경영'을 하고 싶은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목소리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3국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첫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곧바로 "3자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6월 나토 이어 2번째 '3자 회담'…"北완전 비핵화 의연 대응에 일치"
'北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공동 성명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지역·글로벌 이슈도 논의됐다.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강화, 경제회복력 강화, 그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세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3국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특히 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한다"고 각각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진 한일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연하게 대응해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도 "우선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尹-시진핑 첫 대면…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위기 고조속 시진핑, 尹에 '전략소통 강화' 언급 함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대미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인 한중관계를 회고하고, 양국 협력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처럼 25분간의 짧은 회담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협력을 말했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다.

시 주석이 "공동으로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泛) 안보화(안보 개념을 확장해 경제 문제를 자의적으로 안보와 연계)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려 하는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중국이 최근 각국과의 외교 소통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반도체 분야에서 깊숙이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관용구'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미 등은 중국 배제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인 이른바 '칩 4(한미일·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국에 대한 디커플링 시도의 프레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공급망 안정을 한중이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결국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연대체'가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언급은 안보 면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라는 요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 측 인사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과 관련, 한중 고위급 사이의 정치적 상호 신뢰 부족이 갈등의 최대 원인이라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결국 '전략적 소통 강화',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등은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고위급 간의 신뢰를 키우자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전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역내 미군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국면에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다.

결국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때 한국이 북핵 대응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상호 소통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 주석 발언에 내포된 함의일 수 있어 보인다. 어쨌든 이날 두 정상이 온화한 얼굴로 악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식 회담의 형식을 취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상호 필요에 따른 행보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날 회담을 통해 안보 영역에서 한중 입장 사이의 간극과 잠재적 갈등 요소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발표의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與 '친윤-비윤' 또 갈등?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에 '파열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가 마무리되며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삐걱거림이 감지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당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비주류 당권주자로 여겨지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선봉에 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 혹은 경질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잠잠한 듯했던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SNS에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썼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전 의원도 유사한 톤으로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현 여권 주류에 '앙금'이 깊은 유

이상민 경질론·대통령실 수석 퇴장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친윤 전면 재등장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 되자, 친윤계가 반격에 나섰다.

친윤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일 당원 행사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통령 영향력과 비교하면 1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며 비주류 당권 주자들을 압박했다.

친윤계는 급기야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을 퇴장시킨 것을 두고 발끈하면서 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강승규·김은혜 수석을 왜 퇴장시키나"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 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비윤계간 파열음의 배경으로 차기 당권경쟁을 앞둔 계파간 주도권 잡기가 거론된다. 지도부는 갈등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친윤계의 비판에 "자세한 사정을 장 의원과 이 의원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4선 의원 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애초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계획한 일정이지만, 당내 파열음을 자제하고 야당을 상대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걸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내 갈등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갈등 조정의 일환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도 아직 한창이고, 내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누가 세력을 결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 시기에 집안싸움은 공멸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근, '이 XX들, 웃기고 있네'

올해 최고 정치 히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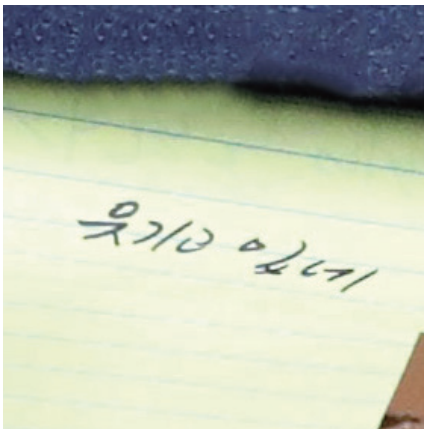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과 김은혜 홍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간 필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 XX들, 웃기고 있네'라고 적으며 "대통령과 그의 입 홍보수석이 한 말을 묶은 짧은 문장이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

카메라에 잡힌 윤 대통령의 '바이든은 쪽팔려서' 발언 장면. 〈사진 출처 : MBC〉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적힌 '웃기고 있네' 문구. 김은혜 홍보수석이 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 향한 속내 담겨"

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품격과 정직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우리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선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쓴 점(현재 웃기고 있는 대상을 향한 것), 필담의 상대였다는 시민사회수석과 그 순간에 다른 대화나 메모는 없었다는 점, 8살 차이의 그 상대 수석에게 평소 반말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처럼 거짓 해명임이 분명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김 수석은 천연덕스럽게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다운 태도였다"며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를 이렇듯 모욕하고 무시하고, 반협치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역대 대통령과 참모들이 과연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국회 다수의석인 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역정을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달은 대통령 자신과 참모들이 일으키고선 어설픈 거짓 해명과 억지 주장으로 곤경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국민의 귀와 눈, 언론의 보도, 야당의 지적,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 탓으로 전가하다 보니 후안무치의 극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협력회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면서 파이팅 구호를 제안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협력회사 방문에 앞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았다.

재계 인사 시즌 임박

복합위기에 '안정'과 '혁신' 묘수 찾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원자잿값 인상, 고환율 등으로 내년 경영 환경이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그룹은 연말 인사로 새 진용을 꾸려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재계 인사 키워드가 '세대교체'와 '미래 먹거리 준비'로 압축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특히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투톱 체제 유지…비서조직 꾸려질 가능성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통상 12월 초에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작년에는 3개 사업 부문의 60대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업 부문을 반도체와 세트 두 부문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50대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의 '투톱' 체제를 구축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투톱 체제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작년처럼 큰 틀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를 통한 조기 승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30~40대 '젊은 리더'들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크다.

이 회장이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외부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사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거나 이 회장의 승진에 따른 별도 비서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출장시에도 별도 수행원 없이 다니는 이 회장의 스타일에 비춰 비서팀을 따로 꾸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비서 조직이 꾸려진다면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에 앞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작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미래전략실 출신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비롯한 각 TF 팀장의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생활가전사업부의 새 수장 찾기 작업도 한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월 8일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현대차, 미래사업 전진배치…'준전시' SK 핵심 유임

조지아 전기차공장 착공식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임원 승진 인사는 통상 재계에서 가장 늦은 편이다.

올해 인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담당할 이들의 전진 배치와 발탁 인사의 폭이 주목된다.

지난해 인사는 미래 먹거리 사업 강화와 세대교체가 핵심이었다. 인포테인먼트 등 주요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차세대가 승진 배치됐고, 이른바 '가신 그룹'이 상당수 물러나 정의선 회장 직할 체제로 세대교체가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올해도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자율주행, 전동화 등 미래 사업을 주도할 이들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30·40대 젊은 인재를 과감하게 임원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인사에서도 신규 임원 3분의 1이 40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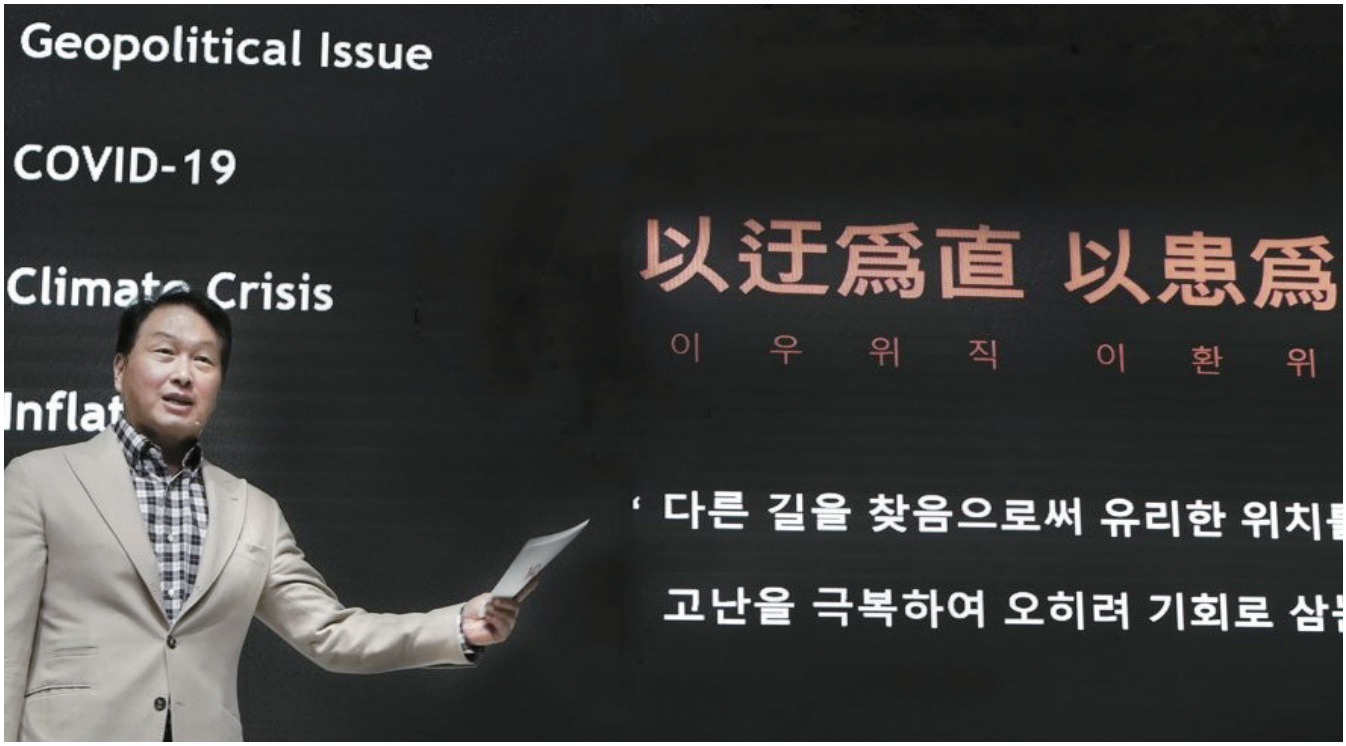
2023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인사가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SK그룹, 평가·보상, 임원 인사, 조직 개편 결정

SK그룹 인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2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사회 경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 관계사 이사회가 대표에 대한 평가·보상,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사별로 순차적으로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을 '준전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핵심 경영



'2022 CEO세미나'서 폐막 스피치하는 최태원 회장

진은 대부분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그룹 내에서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경구가 회자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SKC를 제외한 모든 대표이사를 유임시켰고,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7개 위원장도 교체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2017년 선임 이후 2년 임기의 의장 자리를 3번째 맡고 있다.

SK그룹이 집중 육성하는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BBC 신사업 부문에서 차세대 젊은 인재를 발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그룹, '미래 준비' 방점이 찍힌 인사 이뤄질 것으로 예상

LG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사업보고회를 마치는 이달 말께 임원 인사를 할 예정이다. 사업보고회를 토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 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 계열사가 저조한 실적을 낸 데 이어 4분기와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준비'에 방점이 찍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4번의 임원 인사 중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또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조주완 LG전자 CEO 등 일부 최고 경영진의 변화를 꾀하면서도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 CEO를 유임시켜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했다.

올해도 연륜을 갖춘 기존 경영진에 신뢰를 보내는 한편 차세대 리더에게 새롭게 중책을 맡기는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LG 사장단 워크숍' 참석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상무 역할 관심사

롯데그룹은 예년과 비슷한 이달 말께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한 만큼 올해 인사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대표로 앉히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던 유통 부문은 예년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다.

기존에 백화점 대표를 사장급이 맡아온 만큼 현재 부사장 직급인 정준호 대표의 승진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실적이 악화한 롯데케미칼과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롯데건설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김교현 부회장이 진두지휘해왔고, 그간의 성과도 작지 않은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상무의 역할도 관심사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 아웃렛 화재로 예년보다 1~2주 늦은 이달 중순께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화재 수사 결과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0월 8일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의 경기 후 이대호의 은퇴식에서 신동빈 롯데구단주에게 이대호가 실제 사용했던 글러브를 선물로 전달했다.

한화그룹·CJ그룹, 한발 빠른 인사로 미래 대비

김동관 한화솔루션·한화 전략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

한화그룹 등은 일찌감치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위기 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은 8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달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는 등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모두 끝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하고,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하는 등 그룹 사업 구조 재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CJ그룹은 예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 인사를 단행해 이목을 끌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기 인사 단행 사흘 만에 계열사 CEO와 만나 "초격차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내년에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신세계그룹의 인사 기조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성과주의였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 캐리백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 대표가 바뀌고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끈 ㈜신세계 손영식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바이든 고무에 민주당 우려

“이미 80세인데 재선 도전?”

미국 민주당에서 이번 중간선거 선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는 것을 놓고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팔순을 앞둔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 밖의 선전으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세대교체에 실기하며 재집권 기회를 놓치는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11월 13일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칼럼에서 집권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해낸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에 최악의 악몽일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1942년생으로 미국 정치사상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우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8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2028년에는 86세가 된다.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선데이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간고사 직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 외 다른 후보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40세 이하에서는 75%가 다른 후보를 원했고, 지난 7일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도 투표자의 3분의 2가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예상 밖 존재감에 잠룡들 기회↓
2020년 공신조차 "연임 지지못해"

바이든 대통령은 몇 차례 안 되는 중간선거 유세에서조차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마한 존 페터만 상원의원후보 지원 행사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 노력을 표현하던 도중 "우리는 54개 주에 갔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총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공화국이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캠프 공신 중 하나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과 같은 당 중진들도 대통령의 연임 도전에 부정적이다.

클라이번 의원은 이번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누가 어떤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만 실제 차기 대선후보 선출 과정은 당 안팎의 상황과 맞물려있는 만큼 아직 안갯속이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의 맞수가 2024년 재대결하는 구도가 어느 진영에 유리할지도 판단해봐야 할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와 존재감이 예상보다 견고하게 유지됨에 따라 다른 잠재적 경쟁자가 등장해 이름을 알리고 선거자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를 위시한 잠룡들은 현재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같은 유명 정치인 정도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바이든은 9·11 테러로 조지 W. 부시가 반사이익을 본 2002년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아직 진짜 고난은 닥치지 않았다. 승리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며 "2024년에는 출마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 8개월만에 요충지 헤르손 탈환'…환호하는 시민들

헤르손 퇴각에 뿔난 강경파…푸틴에게까지 손가락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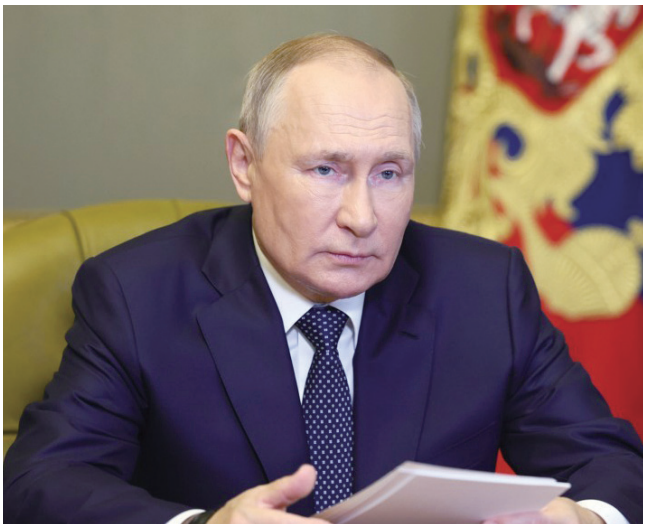
'푸틴의 브레인' 두긴 "한계 도달"…러 공산당도 국방부에 해명 요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퇴각한 것을 두고 러시아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군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일부 러시아 주전론자들이 이례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주창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러



러시아군의 헤르손 퇴각에 일부 강경파의 비판을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아 우익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은 보수 성향 차르그라드TV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전제주의적 지도자의 주요 임무는 그가 통치하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은 (이 외에)어떤 다른 것에도 굴복할 수는 없다.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적어 현 상황에 대한 못마땅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게시물에서 그는 푸틴 대통령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가뭄에 비를 내리지 못해 살해된 아프리카 왕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크렘린궁을 상대로 좀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러시아 공산당도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에서 헤르손 철수 명령에 대한 해명을 국방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이 제안에 즉각 반박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러시아가 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러시아군이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우크라이나 서부 통로를 왜 폭격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러시아 정부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러시아 독립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사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는 실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비꼬았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소유주이자 편집자인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러시아 지배층의 일원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했다는 소식에 환희에 찬 현지 주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는 지난 9월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한 뒤에 진행한 영토 합병 투표에서 90%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날선 비판이 현실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치 분석가로 현재 러시아를 떠나 망명 생활 중인 전직 언론인 막심 트루돌류보프는 "푸틴의 상황이 악화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그는 너무 많은 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내) 핵심 세력과 주요 인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시간여 첫대좌 바이든·시진핑 핵심 이견확인·일부 협력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4일 3시간여 진행된 첫 대면 회담에서도 대만, 인권, 경제 문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다.

그러나 긴장 격화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통과 원칙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며, 기후변화·보건·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단됐던 대화가 복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당대회(10월)를 앞두고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이 대규모 무력 시위로 대응하면서 최고조로 치솟았던 양국간 긴장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두 나라는 사활적 국익이 걸린 핵심 이슈에서는 입장차가 있는 데다 주요 2개국(G2)으로 지역·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 놓고 정면 대립…발언 수위는 이전보다 정제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이 최근 크게 격화된 직접적인 이유인 대만 문제를 놓고 이번에도 정면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국제적 번영을 위험에 빠트리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국 인민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번의 화상 회담이나 전화 통화에서도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인 지난 7월말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 회담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중국측 발표에서 이 표현은 없었다.

만약 시 주석이 '불장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전보다 표현 수위가 절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 "나는 시 주석이 하는 말을 이해했으며 시 주석도 내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임박한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대만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수차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특히 시 주석이 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17차 G20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발리에서 열렸다.

밝힌 만큼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시간을 두고 점점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패권·인권 문제 놓고도 근본적 입장차 노출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위주로 공급망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추구하면서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은 경제 정책을 놓고도 근본적인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탄압과 봉쇄", "과학·경제·무역의 정치화"라고 규정한 뒤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벽을 쌓으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 규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및 전 세계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는 중국과 관련, "경제적 강압, 약탈적인 채무, 공급망 불확실성을 비롯한 위협에 직면해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당 대회 직전에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통해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과학기술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간 안보 전략적인 우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 앞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직접 제기했다. 다만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티베트, 홍콩 등의 탄압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서 핵사용·핵위협 반대에 동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시 주석이 승자가 없는 핵전쟁은 있어선 안 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이나 핵 위협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가운데 백악관 발표대로 시 주석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이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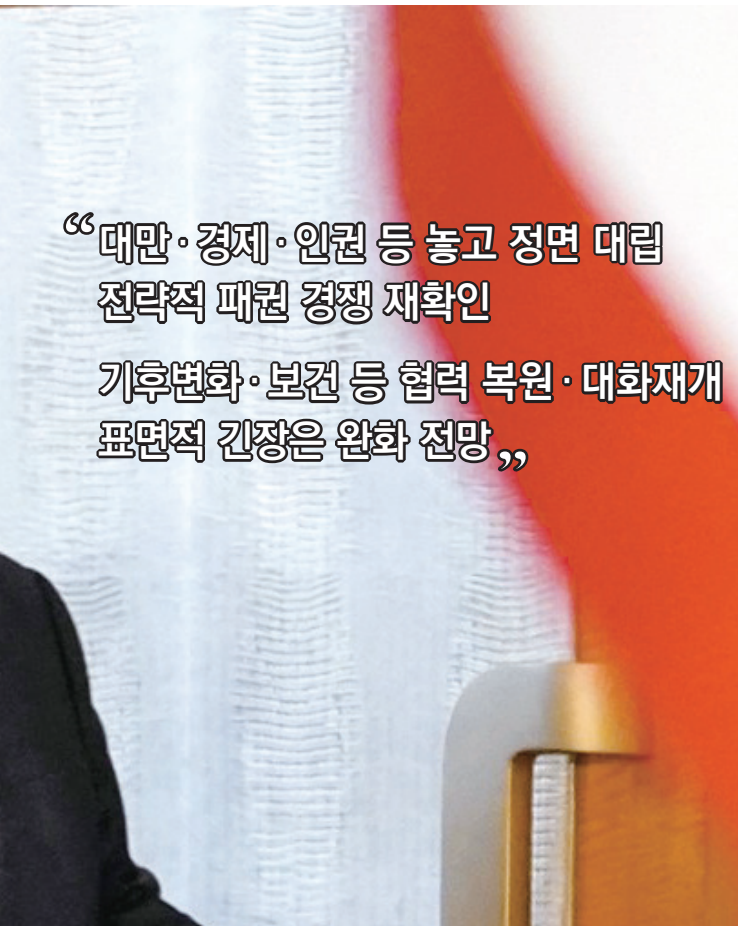
협조는 하지 않고 있으나 공개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재개 지지·기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대화 기대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만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화를 복원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기후 변화, 채무면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안보 및 국제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 노력과 대화 지속에 합의했다고 양측이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중 양국관계에서 특정 이슈에 대응한 노력과 합동 실무그룹을 포함한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진전을 촉구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기후



변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미중간 대화를 중단한 바 있다.

"더 대결적이지도, 더 타협적이지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시진핑 집권 3기의 미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평가됐다.

두 지도자 모두 대형 국내 정치 이벤트를 끝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대결을 피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를 논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두 정상은 모두에서 "충돌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바이든 대통령), "중미 관계를 안정적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시 주석) 등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회담에 들어갔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 복원에 합의했다.

또 충돌 방지와 개방적 소통 채널 유지 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를 위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

정상간 대면 대화가 성사된 데 이어 외교채널 등에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지난 8월 대만 문제로 격화됐던 양국간 표면적인 긴장은 일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국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결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 주석은 더 대결적이거나 더 타협적이지 않았다"면서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직접적이고 직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회담으로 미중간 표면적 기류는 일부 변화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첫삽…이재명 "판교처럼 나아가길"

수도권 3기 신도기 중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계양구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이며 산업 기반이 부족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계양테크노밸리 개발로 첨단 산업 입지가 조성되고 관련 기업이 입주한다면 새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계양테크노밸리가 계양구와 인천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9호선 연장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기반 교통시설 문제도 해결되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부산엑스포 '화끈한' 홍보 등장…'래핑' 열차 부산~서울 달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고속열차 KTX를 활용해 부산 알리기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고속열차 KTX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래핑 열차 홍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래핑은 외관을 출력물로 덧씌우는 형태의 홍보 방식으로 최근 버스, 철도, 항공 등 다수의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주로 적용된다. SK이노베이션은 KTX 열차 1개의 외관, 맨 앞 조종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총 20칸 388m에 걸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부착했다. 해당 열차는 엑스포 개최를 염원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출발, 부산으로 향했다. 열차는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운행될 예정이다.

열차는 'SK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대한 도전에 SK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예정이다. 열차 전면에는 'World EXPO 2030, BUSAN, KOREA'라는 영문 메시지도 담았다.

최민호 세종시장 "U대회 충청 주민 열망… 높은 평가 받은 결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성공에 대해 "큰일을 했으며 충청권 최초의 국제 스포츠 행사로 충청권 주민의 열망이 높은 평가받은 결과다"며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소감을 전해왔다.

최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는 그동안 2020년 7월 공동유치에 합의를 시작으로, 2021년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공식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올해 1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후보 도시로 선정돼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과정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민이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줬다"며 "유치 지지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목표인 100만명을 넘어 140만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4개 시·도 약 30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린다. 개회식은 대전, 폐회식은 세종에서 각각 열릴 예정, 전 세계 150개국에서 약 1만 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개막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을 주제로 한 제3회 제주비엔날레가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은 제3회 제주비엔날레 개막식을 15일 미술관 로비에서 개최했다. 2017년 제1회가 열렸고 2020년 제2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열리지 않았지만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 및 작품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취소돼 주최 측은 올해를 제3회로 명명했다.

올해 제주비엔날레는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되고 16개국 55명(팀)이 참여한다. 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삼성혈, 가파도 AiR, 미술관옆집 제주 등 6개 전시장에서 총 165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외에 ▲국제 큐레이터 토크 ▲가상현실(AR) 체험 ▲어린이·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도 열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주제인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 우주적 시각에서 자연과 생명, 인간의 조화를 다뤄 더 뜻깊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네이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고 발권은 주제관인 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에서 현장에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 누린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으로 촘촘한 돌봄도시로 도약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이 전날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 청년 경제 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내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국회와 기획재정부부 핵심 인사를 만나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여당 간사, 박정 야당 간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완섭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비 미반영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주요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등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최초로 메타버스 경찰서 개서

부산 남부경찰서가 경찰 최초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metaverse)에서 문을 열었다. 부산남부서는 지난 14일 '부산 남부경찰서 in 메타버스'를 개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개서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남부서 in 메타버스'는 비대면·비접촉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남부서는 이를 통해 은밀히 속으로 앓고 있는 암수범죄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상담의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메타버스에서 민원인이 찾아와 아바타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1대1 대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는 112신고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비밀보장이 이뤄진다. 또 각부서의 홍보부스 벽면을 활용해 경찰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의 및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장과 교통 체험,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적 요소를 가미했다.

춘천 레고랜드, 한 달간 주중 3일 휴장…"크리스마스 준비"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15일 한 달간 주중 휴장에 들어갔다. 레고랜드는 동절기 파크 운영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화·수·목 등 주중 3일간 휴장한다. 휴장 이유는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애초 오전 10시부터 문을 열었던 레고랜드는 이날 입장객을 받지 않고 직원들이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휴장을 알지 못한 일부 이용객이 레고랜드 앞까지 찾아다가 되돌아가는 혼선을 빚기도 했으며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은 이용권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등의 불만을 내비쳤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대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주중 3일간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또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파크 전체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세계 레고랜드 운영 시스템에 따라 동절기 시즌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지역사회는 레고랜드 휴장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레고랜드가 침체한 지역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장(5월 5일) 6개월여 만에 전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BTS 제이홉 조형물 · 고래문화마을

"난 메타버스로 간다~"

BTS 제이홉의 고향 광주에 조성된 케이팝스타거리 홉월드 벽화와 팬 메시지 조형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로 최근 급부상한 울산 고래문화마을 등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구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한국관광 테마월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골목에 조성된 'K-POP 스타의 거리'

한국관광 테마월드는 주요 방한시장인 아시아, 특히 디지털 소통과 교감에 익숙한 Z세대(1996년 이후 출생자)들을 겨냥해 제작됐다. 제페토의 한국관광 테마월드를 방문해 한국 관광콘텐츠들을 게임 등 놀이 형태로 즐기고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테마월드는 '트래블 헌터-K'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보물같은 한국관광지를 탐험한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공사 대표 캐릭터인 호종이의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의 산과 계곡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2022 울산고래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15일 고래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을 달리는 '타이거 마운틴', 지역 음식을 소재로 한 야시장, 시대별 한복 등 한국 문화, 동·서·남해를 순환하는 바다열차 등 8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각 시리즈 월드는 10일 이벤트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전국 14개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한 33개 지자체들이 지역 대표 관광지 선정부터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주제 기획과 자료 수집 등에 협업했다.

8개의 테마월드에는 광주 출신의 BTS 멤버 제이홉의 친필 사인과 팬 메시지가 새겨진 기념 조형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의 인기로 최근 급부상한 울산 고래문화마을 등 지역관광자원이 반영됐다.

제페토 사용자 선호도 조사결과로 선정된 충북 '레이크 월드', 춘천 '닭갈비 마을', 삼척 '비밀의 숲', 대전 '꿈돌이 동산', 영광 '다시 만난 사랑 상사화' 등 5곳의 지자체 월드도 다음달 중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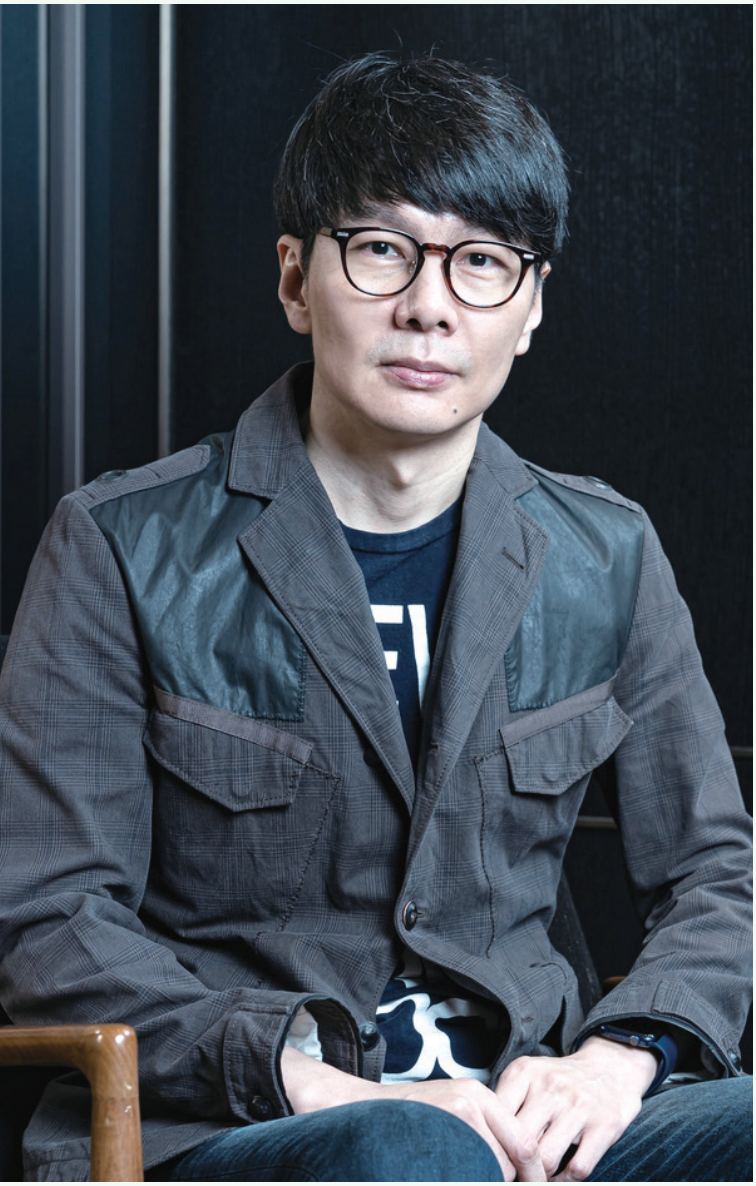
공사는 다음달 4일까지 약 한달간 월드 오픈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에 나선다. 제페토의 다양한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활용해 한복, 한국어 학습, 지역관광지 팸투어 등 한국문화관광 체험·학습을 제공해 외국인 사용자들에게 한국을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메타버스 속 한국과 함께 현실 속 한국도 여행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 주어진다. 제페토 아바타 의상과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15만 상당의 젬을 건 다양한 월드 미션과 이벤트도 펼쳐진다. 제페토에서 'kto_rea'를 검색하면 자세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영 공사 디지털혁신팀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관광지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한국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빼미’ 안태진 감독

“극장서 눈·귀 열고 보면 좋을 영화”



영화 ‘올빼미’는
눈과 귀를 모두 열고 보셔야 재밌고,
온전히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11월 23일 개봉하는 ‘올빼미’는 안태진 감독이 2005년 ‘왕의 남자’ 조감독 이후 17년 만에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관객 앞에 내놓은 첫 작품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안 감독은 데뷔작 개봉을 앞둔 소감을 묻자 “어안이 벙벙하다”며 쑥스러워했다.

안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개봉을 준비했다. 마치 열차를 탄 듯이 달려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정식 데뷔까지 지난 17년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다고 했다.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을 준비하다가 잘되지 않으면 엎어지고, 또 다른 영화를 준비했던 시간.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얼떨떨하다고 할까요.”

오랜 노력과 인고 끝에 내놓은 ‘올빼미’에 대해 그는 “대단히 시각적인 영화이면서도, 다분히 청각적인 영화”라고 소개했다.

‘올빼미’는 밤에만 희미하게 보이는 주맹증 침술사 경수(류준열 분)가 궁궐 내의원으로 들어간 뒤 소현세자가 숨지는 현장을 목격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시각장애인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체다 보니 소리와 색감이 기존 영화와 다르게 다가온다. 환한 장면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공처럼 시각은 닫히는 대신 음향이 서서히 올라가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진다.

화면이 어두워지는 밤이 되면 반대로 경수의 눈이 열리면서 영화는 음향 대신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극장에서 봐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에서는 유해진이 인조 역할을 맡았다. 코미디물에서 큰 웃음을 줬던 배우인지라 무게감 있는 왕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심이었다.

안 감독은 "유해진 배우와 3번째 함께 하는 작품"이라며 "연출자 입장에서는 너무 일하기 편한 배우,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떠올렸다.

맹인 침술사 경수를 연기한 류준열을 두고는 "영화 전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아는 배우"라고 높이 평가했다. 스릴러물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그는 차기작으로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SF 스릴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언가 (시나리오를) 쓰고 나면 10개 중 8개 정도는

미스터리나 스릴러물이더라고요. 저는 영화가 막힐 때면 히치콕의 작품을 많이 봅니다. 함정에 빠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가왕’ 조용필, 9년만에 신곡 ‘찰나’·‘세렝게티처럼’

‘가왕’ 조용필이 11월 18일 신보 ‘로드 투 20 - 프렐류드 1’(Road to 20-Prelude 1)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YPC가 밝혔다.

조용필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초 분량의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신곡 두 곡의 제목인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이 담겼다.

특히 이 영상에는 경쾌한 리듬과 더불어 ‘격정적인 찰나’라는 신곡의 한 소절이 포함돼 기대감을 자아냈다.

조용필의 신보 발표는 2013년 가요계를 강타한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9년 만이다. 이 음반 선공개곡 ‘바운스’(Bounce)는 당시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기록하며 숱한 아이돌 신곡을 뚫고 지상파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YPC는 “이번 신보는 조용필이 앞서 19장의 정규음반을 발표하는 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형태의 발매”라고 소개했다. ‘프렐류드’가 도입부 형식의 악곡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 20집을 앞두고 선공개 형식의 싱글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요계에서 나온다. 더욱이 내년은 조용필의 데뷔 5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신곡 발매를 기점으로 ‘가왕’이 본격적으로 활동 재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조용필은 이달 26~27일과 12월 3~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조용필 & 위대한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 공연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4만석 전석이 팔려나간 바 있다.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천만장 돌파, 일본 내 한국 가수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세웠다.

‘아스달 연대기’ 내년 시즌2 방송

시즌2에 이준기·신세경 합류

tvN 인기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내년에 시즌2로 돌아온다.

tvN은 ‘아스달 연대기’ 시즌2에 이준기, 장동건, 신세경, 김옥빈을 캐스팅해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스달 연대기’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2019년 9월 시즌1이 종영했다.

시즌2에는 이준기와 신세경이 새롭게 합류한다. 이준기는 대륙 동쪽의 막강한 권력자가 된 이나이신기 은섬 역을, 신세경은 와한족의 힘없는 노예에서 대제관의 지위에 올라 아스달 3대 권력의 강력한 한 축이 된 재림 아사신 탄야 역을 맡았다.

장동건과 김옥빈은 시즌1에 이어 각각 아스달의 지배자 타곤, 욕망의 정치가 태알하를 연기한다.

아스달 연대기 시즌2는 타곤이 왕좌를 차지하고 약 8년이 흐른 이후의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타곤의 아스달 왕국과 은섬의 아고연합이 아스대륙의 명운을 건 피할 수 없는 대전쟁을 앞두고 대치한다.

극본은 시즌1에 이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연출은 영화 ‘안시성’의 김광식 감독이 맡았다.

위부터 이준기, 장동건, 신세경, 김옥빈

술꾼도시처녀들 완전판

음주에 진심인 세 친구를 그려낸 웹툰 '술꾼도시처녀들'(술도녀)이 완전판으로 출간됐다.

술에 취하면 엉엉 우는 진상 '꾸미', 여성스러운 외모에 어마어마한 주량을 자랑하는 '리우', 매일 금주 선언과 철회 선언을 반복하는 '정뚱' 등 세 친구가 온 마음을 다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작가는 미디어에서는 '주체적으로, 맛있게, 많이' 술을 마시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데 주목해 멋진 여성 술꾼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2014~2017년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됐으며, 단행본으로도 3권에 걸쳐 출간된 바 있다. 이를 원작으로 티빙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이 제작돼 지난해 시즌1을 방영했다. 시즌2는 올해 12월 나올 예정이다.

미깡 지음 / 위즈덤하우스 / 324쪽

'불편한 편의점' 100만부 돌파

김호연 지음 / 나무옆의자 / 268쪽

김호연(48)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1·2권을 합해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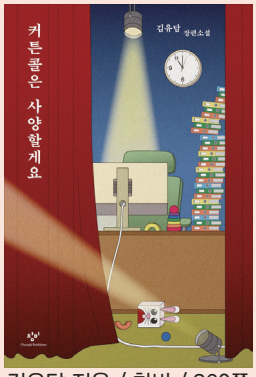
출판사 나무옆의자는 "지난해 4월 출간한 1권은 80만 부, 올해 8월 펴낸 2권은 20만 부 넘게 팔려 통합 판매 100만 부를 넘겼다"고 밝혔다. 2020년대 들어 100만 부 넘게 팔린 한국 소설로는 '달러구트 꿈백화점'(전 2권)과 '아몬드'에 이어 세 번째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불편한 편의점' 1권은 출간 다음 달부터 2쇄·3쇄를 찍더니, 지난해 6월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서재 종합 순위 1위를 했다.

휴머니즘이 깃든 '힐링 소설'로 청소년들도 찾으며 올해 상반기 교보문고, 예스24 집계 가장 많이 팔린 책에도 올랐다.

이에 힘입어 올해 8월 2권이 출간되면서 두 권 모두 각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커튼콜은 사양할게요



김유담 지음 / 창비 / 360쪽

연극배우의 꿈을 접어두고 출판사에 취직한 스물여섯 살 조연희의 힘겨운 직장생활을 통해 이 시대 젊은이의 애환을 맛깔나게 그렸다. 조연희는 "나 신입 때는 아침에 내 컴퓨터를 켜면서 선배 컴퓨터도 같이 켜놓곤 했는데"라고 눈치를 주는 선배의 컴퓨터를 대신 켜면서 그가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잔뜩 깔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입다운 맛이 없다"고 혀를 차는 팀장을 모셔야 하는 그는 메신저 프로필을 주의 깊게 살피며 기분을 가늠하는 등 나름의 처세술을 익히지만 회사생활은 잘 풀리는가 하면 이내 위태위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진다. '커튼콜은 사양할게요'라는 제목에는 팀장의 사심 섞인 워크숍도 거부할 수 없는 조연희의 마음이 압축돼 있다.